

2021년  
주요연구성과



가축 사양기술 및 초지사료 활용 기술개발

말 조기방목으로 사료비 절감

## 일년생 사료작물을 활용한 방목기간 연장 기술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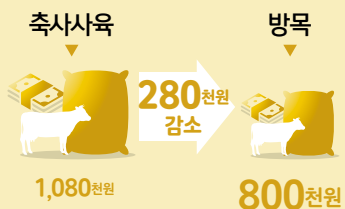
국내 방목초지는 주로 복방형 목초를 재배해 이른 봄까지 말 방목이 어려워 농가 사료비 증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년생 사료작물을 활용한 목초 재배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일년생 사료작물 재배로 말 조기방목이 가능해져 농가 사료비 절감은 물론 경관개선, 관광 자원화 등 목초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


### 건물수량(3월)



### 사료비(2두 3개월) 변화



### 목초지 활용기간



호밀(3.23.)



이탈리안라이그라스(3.23.)



귀리(3.23.)

## 연구배경

- **[현 황]** 국내 방목초지는 주로 북방형 목초를 재배해 이른 봄까지 말 방목이 어렵고 사료비가 증가하는 문제 발생
- **[필요성]** 방목기간 연장을 위한 사료비 절감 목초 재배기술 개발 필요

## 개발성과

- **[재배기술]** 일년생 사료작물 활용 기술 개발 및 재배효과 구명
  - 호밀 파종 시 초기 생초 수량 증가(말 조기 방목에 적절)
  - \* 초기 건물수량(3월): 호밀 7,078kg/ha > IRG 5,930 > 귀리 5,832
  - \* 방목지 내 호밀 비율: (3월) 38% → (7월) 18 (기존 목초 식생회복 ↑)
  - 일년생 사료작물 재배로 말 조기 방목 및 영년생 목초 지속 재배 가능

## 파급효과

- **[경제적효과]** 말 방목기간 연장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
  - \* 사료비(2두 3개월): (축사사육) 1,080천원 → (방목) 800 (280천원 감)
- **[사회적효과]** 국내 목초지 활용성 증대(7개월 → 10개월) 및 관광자원화